

한화, 대우조선 이어 쌍용건설 군침?

김승연 회장, 신 성장동력 발굴 강조 ... 전면 부인에도 가능성 남아

일본에 체류하며 경영 구상에 몰두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귀국했다.

1월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, 1월13일 일본으로 출국한 김승연 회장은 한화 도쿄법인을 방문하는 등 현지 체류일정을 소화한 뒤 1월31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김승연 회장은 귀국 후 경영진 등에게 “대우조선 인수 무산 등 지난 일에 신경쓰지 말고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”며 “2009년에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자”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“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2010년 이후를 감안해 그룹의 신 성장동력을 찾는 작업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”고 당부했다.

한화그룹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쌍용건설 인수설과 관련해서는 “전혀 검토한 바 없다”고 부인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2/03>